

# 쿨리코보 - 보로디노 - 파리의 선율\*

최 종 술\*\*

## 1.

<...> Бородино! Бородино! / На битве исполинов новой / Ты славою озарено, / Как древле поле Куликово. // Вопрос решаю роковой - / Кому пред кем склониться выей, / Кому над кем взнестись главой, - / Там билась Азия с Россией. // И роковой вопрос решен: / Россия в битве устояла, / И заплескал восторгом Дон, / Над ним свобода засияла. // Здесь - на полях Бородина - / С Россией билася Европа, / И честь России спасена / В волнах кровавого потопа. // И здесь, как там, решен вопрос / Со всем величием ответа: / Россия стала как колосс / Между двумя частями света. // Ей роком отдан перевес, / И вознеслась она высоко; / За ней, пред нею лавров лес / Возрос, раскинулся широко. <...>

- С. Е. Раич, "Арета"(1839)<sup>1)</sup>

[...] 보로디노! 보로디노! / 거인들의 새로운 싸움에서 / 오래전 쿨리코보 들판이 그랬듯이, / 너는 영예의 빛으로 물들었다. // 누가 누구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인가? / 누가 누구 위로 머리를 들 것인가? / 숙명적인 질문을 해결 하기 위해 / 아시아와 러시아가 거기에서 싸웠다. // 숙명적인 질문은 해결되었다. / 러시아는 전투에서 넘어지지 않았고, / 환희로 넘실대는 돈 강 위에서 / 자유가 빛났다. // 여기 보로디노 들판에서는 / 유럽이 러시아와 싸웠다. / 피의 홍수 속에서 / 러시아의 명예가 구원되었다. // 거기처럼 여기서도 질문은 / 장엄한 대답과 함께 해결되었다. / 두 세상 사이에 / 러시아는 거상으로 우뚝 섰다. // 러시아의 우세는 숙명. / 러시아는 드높이 솟구쳤고, / 앞뒤에는 월계수의 숲이 / 자라나 드넓게 펼쳐졌다. [...]

- 세몬 라이치, 「아레타」(1839)

\* 이 글의 개요는 ‘러시아 인문학의 조망: 조국전쟁 200주년에 즈음하여’를 주제로 하여 열린 ‘제 2차 러시아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소개되었음.

\*\* 상명대 러시아어문학과 교수

1) Ю. А. Беляев(сост.)(1987) *1812 год глазами очевидцев. Поэзия и проза*, М.: Современник, [http://az.lib.ru/t/raich\\_s\\_e/text\\_0070.shtml](http://az.lib.ru/t/raich_s_e/text_0070.shtml)(검색일: 12.09.03).

튜체프(Ф. И. Тютчев)의 스승이었던 라이치의 시구이다. 러시아 역사의 두 기념비적 사건인 쿨리코보 전투와 보로디노 전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애국적 파토스 넘치는 말로 승리의 영광을 노래한다. 보로디노 들판에 선 시인. 가깝고 먼 두 과거사를 대비시키며 국가의 역사적 숙명에 대해 말한다. 두 전쟁은 두 거대한 세계 사이에 거상과 같이 우뚝 선 자주적인 존재인 조국 러시아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숙명이다. 아시아와 서구의 두 세계와의 숙명적인 대결이다. 한편으로는 자유를, 다른 한편으로는 명예를 지킨 전쟁이다.

라이치의 시구는 쿨리코보와 보로디노가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의 역사적 원천임을 말하는 전형적 텍스트이다. 영광스러운 기억의 대상이 되는 역사의 두 페이지. 전 민족의 결집을 통해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존을 지켜낸 ‘조국전쟁’이다. 그래서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동등한 찬양의 대상이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시적 사색에서 쿨리코보와 보로디노는 단순히 동등한 찬양의 대상만은 아니다. 근대 러시아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운명의 부침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시적 사색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쿨리코보와 보로디노가 러시아 근·현대사에 대해 지닌 예언적 의미를 제기하는 중요한 두 텍스트가 대두된다. 푸시킨(А. С. Пушкин)의 「나폴레옹(Наполеон)」(1821)과 블로크(А. А. Блок)의 「쿨리코보 들판에서(На поле куликовом)」(1908)가 그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예언으로서의 의의를 지녔던 시들이다. 푸시킨은 보로디노의 경험이 담은 근대의 길에 대해 말한다. 블로크의 시는 근대 러시아의 역사적 길이 다다른 막다른 골목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띠고 대두되는 쿨리코보의 의미에 대한 사색이다. 보로디노와 쿨리코보가 러시아 근·현대사의 굴곡에 대해 지닌 의미에 대한 두 시인의 사색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 세기 후의 파리의 시인 게오르기 이바노프(Г. Иванов). 19세기 초 파리의 체험이 낳았던 근대의 이상의 좌절이 20세기 러시아인과 러시아문화에 안긴 비극의 증거자이다.

세 시인의 시에 구현된 ‘자유’의 이상의 세 가지 양상이 지닌 사회·문화사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 글의 중심을 이룬다.

2.

Чудесный жребий совершился: / Угас великий человек. / В неволе мрачной закатился / Наполеона грозный век. / <...> Когда надеждой озаренный / От рабства пробудился мир, / И галл десницей разъяренной / Низвергнул ветхий свой кумир; / Когда на площади мятежной / Во прахе царский труп лежал, / И день великий, неизбежный – / Свободы яркий день вставал, – // Тогда в волненье бурь народных / Предвидя чудный свой удел, / В его надеждах благородных / Ты человечество презрел. / В свое погибельное счастье / Ты дерзкой веровал душой, / Тебя пленяло самовластье / Разочарованной красой. // И обновленного народа / Ты буйность юную смирил, / Новорожденная свобода, / Вдруг онемев, лишилась сил; / <...> Хвала! он русскому народу / Высокий жребий указал / И миру вечную свободу / Из мрака ссылки завещал.

- А. С. Пушкин, “Наполеон”(1821)<sup>2)</sup>

경이로운 운명이 이루어졌다. / 위대한 인간이 사라졌다. / 어두운 창살 안에 갇힌 채 / 나폴레옹의 맹렬한 세기가 저물었다. / [...] 희망의 빛에 물든 세상이 / 노예상태에서 깨어나고, / 프랑스인들이 분노에 찬 오른손으로 / 낡은 우상을 쓰러뜨렸을 때, / 황제의 시체가 먼지에 싸여 / 반역의 광장 위에 쓰러져 눕고, / 피할 길 없는 위대한 날이, / 자유의 눈부신 날이 일어서고 있었을 때, // 그때 너는 휘몰아치는 민중의 폭풍우 속에서 / 너의 경이로운 운명을 예견하며, / 민중의 고결한 희망 속에서 / 인류를 멸시했다. / 오만한 영혼으로 / 파멸적인 행복을 믿었다. / 독재가 환멸에 찬 매력으로 / 널 사로잡았다. // 갱신된 민중의 젊은 격동의 파도를 / 네가 가라앉혔고, / 새로 태어난 자유가 / 갑자기 말을 잃고 힘을 잃었다. / [...] 찬양하라! 그는 러시아 민중에게 / 지고한 운명을 제시했고, / 유배의 암흑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 세상에 물려주었다.

- 알렉산드르 푸시킨, 「나폴레옹」(1821)

1812년 전쟁은 러시아의 사회사상과 문화 발전에 기폭제가 된 사건이다. 전쟁은 민중의 힘에 대한 자각을 불러왔고 애국심을 고양시켰다. 민중에 대한 사고와 애국심의 유형에 따라 이후 러시아 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역사적 길의 향방이 미리 결정되었다. 1812년 전쟁은 이념투쟁의 장, 체제수호의 이데올로기와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었던 것이다.<sup>3)</sup>

2) А. С. Пушкин(1978) *Сочинения в трех томах*, Т. 1, М.: Худ. литература, С. 134-137.

3) А. И. Грушкин(1941-1956) “Война 1812 год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стория*

전쟁에 대한 시적 사색 역시 내적으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양분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푸시킨의 시 「나폴레옹」은 예외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테카브리스트 세대에게 1812년 전쟁이 지닌 의미를 명확히 표현했던 것이다. 그것은 신을 모독한 악마, 목시록적 적그리스도, ‘저주받은 스바토폴크(Святополк Окаянный)’, 카인 등의 형상, 곧 악의 화신인 폭군으로 대두되던 나폴레옹 형상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이루어졌다.<sup>4)</sup>

「나폴레옹」은 푸시킨이 나폴레옹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쓴 시이다. 시인은 나폴레옹의 삶을 결산하며 그의 행적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다. 나폴레옹의 형상에 대한 평가는 전적인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시인의 말에는 찬양과 비판의 모순적 태도가 결합되어 있다. 나폴레옹의 개성에 대한 시적 조명에는 비범한 개인에 대한 낭만주의적 찬양의 코드가 결부되어 있으며, 그의 행적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적 평가에는 도덕적 잣대가 작용한다. 한편으로 나폴레옹은 위대한 개인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적이고 폭군이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폭군의 몰락이자 동시에 위대한 인간의 파멸이다.<sup>5)</sup>

시의 도입부인 인용된 첫 두 시구에서 시인은 “위대한 인간의 경이로운 운명의 마무리”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구들에서의 나폴레옹의 형상에 대한 조명이 비범함의 아우라 속에서 이루어진다. 시인은 비범한 개인의 비극적 운명에 공감한다. 동시에 비극적 운명의 원인은 역사적·도덕적 성찰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

푸시킨은 레르몬토프(М. Ю. Лермонтов)가 계승하게 되는, 시대의 대변자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10 т., Т. 5, М.;Л.: Изд-во АН СССР, С. 315-319* 참조.

4) Анна Евтихиева,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812 г. и ее отражение в рус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сознании и культуре”(http://www.voskres.ru/school/evtihieva.htm: 검색일:12.09.03) 참조. 푸시킨 문학에서의 나폴레옹 형상의 진화에 대해서는 О. С. Муравьева(1991) “Пушкин и Наполеон (Пушкинский вариант «наполеоновской легенды»),” *Пушкин: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материалы*, Т. 14, Л.: Наука, С. 5-32 참조. 푸시킨의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는 서구의 정치적·사회적 삶의 변화와 함께 대두된 나폴레옹 숭배의 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Муравьева (1991), 9-10 참조.

5) 나폴레옹의 형상의 이중성과 결부된 시의 문체적 혼종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Ю. В. Стенник(1975) “Традиции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ды XVIII века в лирике Пушкина периода южной ссылки («Наполеон»),” *XVIII век. сб.* 10, Л.: Наука, С. 107-112 참조.

로서 나폴레옹의 운명이 지닌 불멸의 의의를 정초했다.<sup>6)</sup> 푸시킨에게 나폴레옹은 자유의 이상, 혁명이 태동시킨 인류의 희망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소임에 대한 배반이 그의 비극의 원인이다. 한없는 이기주의, 자기고양에 대한 지향, 오만이 나폴레옹을 “인류를 멸시하고”, 민중의 희망을 짓밟은 폭군으로, “갓 태어난 자유의” 찬탈자로 변모시켰다.

시의 종결부에서 푸시킨은 종국에 나폴레옹이 찬양의 대상임을 말한다. 그가 러시아 민중에게 제시한 “지고한 운명” 때문이다. “지고한 운명”이라는 말 속에는 러시아 민중이 유럽에 대한 나폴레옹의 지배를 무너뜨린 역사적 소임을 수행했다는 명백한 의미 뿐 아니라, 적의 침략에 맞선 초인적인 투쟁 속에서 러시아 민중이 처음으로 사회적 자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푸시킨의 생각은 나폴레옹 주제를 다루는 시적의식의 중요한 전환이다. 그의 시를 통해 ‘조국전쟁’의 의미는 국가적 자존의 협소한 사고의 틀을 벗어난다. 푸시킨은 프랑스 혁명이 서구사회에 열어 놓은 역사적 전망의 문맥에서 1812년 전쟁의 의의를 가늠한다. 나폴레옹에 대한 러시아 민중의 승리가 완전히 다른 척도, 완전히 다른 역사적 의미를 획득한다. 그것은 침략자에 대한 승리일 뿐 아니라 폭군에 대한, ‘자유의 찬탈자’에 대한 승리이다. 시인은 나폴레옹에게 폭군의 낙인을 찍으며 동시에 러시아 민중에게 자유의 이상을 각인시킨 존재로 그를 찬양한다.

5년 후 니콜라이 1세에게 보내는 옥중서한에서 데카브리스트 베스투제프(A. A. Бестужев)가 1812년 전쟁이 지닌 바로 그와 같은 의의를 명확히 선언한다.

Наполеон вторгся в Россию, и тогда-то народ русский впервые ощутил свою силу, тогда-то пробудилось во всех сердцах чувство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перва политической, а впоследствии и народной. Вот начало свободомыслия в России... Еще война длилась, когда ратники, возвратясь в дома, первые разнесли ропот в классе народа. “Мы проливали кровь, – говорили они, – а нас опять заставляют потеть на барщине. Мы избавили родину от тирана, а нас опять тиранят господа...” Тогда-то стали говорить военные: “Для того ль освободили мы Европу, чтобы наложить ее цепи на себя? Для того ль дали

6) *Лермонтов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1999), М.: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С. 332 참조.

конституцию Франции, чтобы не сметь говорить о ней, и купили кровью первенство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чтобы нас унижали дома?”<sup>7)</sup>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민중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느꼈고, 그때 모두의 가슴 속에서 독립의 느낌이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독립의 느낌이 깨어났고, 후에는 민중의 독립의 느낌도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러시아에서 자유애호사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집으로 돌아온 첫 병사들이 민중계급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를 흘렸는데, 다시 우리를 부역에 지치게 하는구나. 우리가 조국을 폭군으로부터 지켰는데, 귀족들은 다시 우리에게 압제를 가하는구나…….” 그때 군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우리가 유럽을 해방시켰단 말인가? 프랑스에는 헌법을 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못한단 말인가? 피를 대가로 가장 뛰어난 민족의 지위를 얻었는데, 집에서는 굴욕에 처했던 말인가?”

데카브리스트의 세계관 형성에 1812년 전쟁은 결정적 의의를 지녔던 것이다. 그래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데카브리스트들은 자신들을 “1812년의 자식들”이라 지칭했다. 푸시킨이 예언한 바와 같이, 나폴레옹 전쟁은 ‘조국전쟁’이면서 동시에 민중의 사회적 자유를 위한 정치적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인텔리겐치아의 역사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태동한다. 알렉산드르 1세와 독대하며 나눈 대화에 대한 데카브리스트 볼콘스키(С. Г. Волконский)의 회상을 보자.

“...Я лично и без Аракчеева был допущен к государю. Тут он мне сделал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Каков дух армии?” Я ему отвечал – “Государь! От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го до всякого солдата, все готовы положить свою жизнь к защите Отечества и вашего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величества”. Снова он спросил – “Как дух народный?” На это я ему отвечал – “Государь! Вы должны гордиться им: каждый крестьянин – герой, преданный Отечеству и Вам.” Он снова спросил – “А дворянство?” Я ему сказал – “Государь! Стыжусь, что принадлежу к нему, было много слов, а на деле ничего.” Государь тогда взял меня за руки и сказал: “Рад, что вижу в тебе эти чувства. Спасибо, много спасибо.”<sup>8)</sup>

7) И. Щипанов(ред.)(1951) *Избранные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и философ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декабристов*, Т. 1, М.: Гос. изд. полит. лит., С. 492.

8) В. Г. Левченко и В. В. Володин(сост.)(1987) *Недаром помнит вся Россия...*:

나는 아락체예프 없이 폐하를 독대했다. 그때 군주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군대의 정신상태는 어떤가?” 나는 대답했다. “폐하! 사령관부터 개개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조국과 폐하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민중의 정신상태는 어떤가?”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 민중을 자랑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개개 농민이 다 조국과 폐하께 헌신하는 영웅입니다.” 군주가 또 물었다. “귀족은?” 나는 그에게 말했다. “폐하! 제가 귀족에 속한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말은 많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군주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대 안에서 이런 감정을 보니 기쁘다. 고맙네, 많이 고마워.”

그와 같은 귀족의 자기계급에 대한 수치심이 19세기 사회변혁운동의 시작이었다. 클류체프스키(В. Ключевский)가 갈파한 바와 같이, 러시아 귀족의 역사적 죄의식의 근원에는 18세기가 노정한 러시아 근대의 모순적 풍경이 자리한다.

Реформа Петра была борьбой деспотизма с народом, с его косностью. Он надеялся грозю власти вызвать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ь в порабощенном обществе и через рабовладельческое дворянство водворить в России европейскую науку, народное просвещение как необходимое услов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самодеятельности, хотел, чтобы раб, оставаясь рабом, действовал сознательно и свободно. Совместное действие деспотизма и свободы, просвещения и рабства – это политическая квадратура круга, загадка, разрешавшаяся у нас со времен Петра два века и доселе неразрешенная.<sup>9)</sup>

표트르의 개혁은 전제주의가 민중, 민중의 타성과 벌인 싸움이였다. 그는 권력의 공포로 노예화된 사회 속에 자주성을 불러일으키고, 노예를 소유한 귀족을 통해 서구의 학문과 사회적 자주성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의 민중계몽을 러시아에 정착시키기를 희망했다. 노예가 노예로 남은 채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원했다. 압제와 자유, 계몽과 노예제도의 공동작용.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표트르의 시대부터 2세기동안 해결을 모색해 왔고 지금도 풀지 못한 정치적 원적법, 수수께끼이다.

---

Сборник, М.: Мол, гвардии, С. 172.

9) В. О. Ключевский(1958) *Курс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Т. 4, М.: Изд-в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 221.

표트르의 근대화 기획은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깊은 내적 균열을 가져왔다. 계몽의 결실을 누리는 특권계급인 귀족과 억압된 민중의 대립. 민족문화의 뿌리를 경시하고 망각해왔던 러시아 귀족은 1812년 전쟁을 통해 민중을 ‘발견한다.’ 나아가 귀족 인텔리겐치아는 기생적 특권 계층인 자기존재의 기만성을 뼈아프게 자각하게 된다. 19세기를 관류하는 인민주의 운동의 막이 오른다.

19세기의 시대정신은 러시아문학에 ‘참회하는 귀족’의 형상을 낳았다. 그것은 19세기 인민주의 사상의 문학적 유산이었다.<sup>10)</sup> ‘조국 속의 이방인’인 역사적 실존상황에 맞서 민중의 삶과 민중문화를 알고자 추구하고, 민중과 혼연일체가 됨으로써 역사적 죄과를 씻고자 하는 귀족의 형상. 인텔리겐치아의 정신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민중에 대한 도덕적 콤플렉스는<sup>11)</sup> ‘잡계급’의 대두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시민적 입장으로 표출된다.

그와 같은 근대사의 맥락에서 19세기 러시아 문학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보다 정치화할 것에 대한 요구가 설득력을 지닌다. 근대 러시아 사회의 거울인 19세기 러시아문학은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양계층이 처한 실존적 고뇌로부터의 출구 모색이었다. 교양계층의 자기인식과 역사적 콤플렉스가 투영된, 인텔리겐치아의 ‘실존문학’이었던 것이다.<sup>12)</sup>

근대 러시아가 시초부터 떠안은 민중의 사회적·법적 자유의 실현과 민족문화의 통합의 과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은 곧 인텔리겐치아의 역사적 소임의 실패를 의미했다. 그리고 그 문학적 표출이 사회와 문화 통합의 이상과 과제의 담지자로서의 이상적 개인, 곧 19세기 문학의 주인공의 죽음이었다. 두 문화가 극복될 수 없는 괴리에 처했다는 명확한 인식과 함께, 인텔리겐치아 휴머니즘 문화의 죽음과 함께 러시아의 19세기는 종말을 고한다. ‘민중’이 새로운 역사적 주체로 대두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역사적·문화적 전환점에서 블로크의 쿨리코보에 대한 시적 사색이 대두된다.

10) Н. А. Бердяев(1990) *Истоки и смысл русского коммунизма*, М.: Наука, С. 48-49.

11)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힘은 지성이 아니라 가슴과 양심에 있다(Сила рус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 не в intellectus’e, не в уме, а в сердце и совести.)” Д. С. Мережковский(1992) “Грядущий хам,” *Интеллигенция – власть – народ. Русские источники соврем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философии (антология)*, М.: Наука, С. 113.

12) Виктор Аксютин(2011) “Русск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о русском народе,” [http://www.golos-epohi.ru?ELEMENT\\_ID=1695](http://www.golos-epohi.ru?ELEMENT_ID=1695)(검색일:12.09.03) 참조.



3.

<...> О, Русь моя! Жена моя! До боли / Нам ясен долгий путь! / Наш путь – стрелой татарской древней воли / Пронзил нам грудь. // Наш путь – степной, наш путь – в тоске безбрежной – / В твоей тоске, о, Русь! <...>

<...> Но узнаю тебя, начало / Высоких и мятежных дней! / Над вражьем станом, как бывало, / И плеск и трубы лебедей. // Не может сердце жить покоем, / Недаром тучи собрались. / Доспех тяжел, как перед боем. / Теперь твой час настал. – Молись!

- А. А. Блок, “На поле куликовом”(1908)<sup>13)</sup>

[...] 오, 나의 루시! 나의 아내! 고통스럽도록 / 긴 여정이 우리에게 선명하다! / 우리의 길은 고대의 타타르의 자유의 화살로 / 우리의 가슴을 꿰뚫었다. // 우리의 길은 초원의 길. 우리의 길은 한없는 애수에 잠긴 길. / 오, 루시! 너의 애수에 잠긴 길. [...]

[...] 그러나 너를 알겠다, 지고하고 / 격렬한 나날의 시작이여! / 예전처럼 적의 진영 위에는 / 백조들의 날갯짓과 울음소리. // 심장은 평온하게 살 수 없다, / 까닭이 있어 먹구름들이 몰려들었다. / 전투를 앞둔 것처럼 갑옷이 무겁다. / 이제 너의 시각이 도래했다. 기도하라!

- 알렉산드르 블로크, 「쿨리코보 들판에서」(1908)

다섯 편의 시로 이루어진 사이클 「쿨리코보 들판에서」의 첫 시와 마지막 시를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블로크는 단순히 영웅적 과거에 대한 찬양이 아닌 러시아의 역사적 운명에 대해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쿨리코보를 시화했다. 다시 말해, “지고하고 격렬한 나날의 시작”이라는 시구가 대변하듯 쿨리코보 전투의 상징을 시인 자신의 운명과 결부된 동시대 러시아가 처한 상황과 미래에 대한 사색에 이용한 것이다. “이제 너의 시각이 도래했다. 기도하라!”는 말은 시인 자신을 향한 말이다.

전환의 시대에 대한 블로크의 고민의 중심에 놓인 고통스러운 질문이 다름 아닌 근대 러시아사의 비극적 문제인 민중과 인텔리겐치아의 대립이다. 빈번히 언급된 바와 같이, 블로크에게 드미트리 돈스코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의 진영과 마마이(Мамай) 군단의 대치는 민중과 인텔리겐치아 진영의 대립과 임박한 충돌을 상징한다. 블로크 자신의 말과 다른 작품이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13) А. А. Блок(1997) *Полн. собр. соч. в 20 т.*, Т. 3, М.: Наука, С. 170-173.

Есть между двумя станами – между народом и интеллигенцией – некая черта, на которой сходятся и сговариваются те и другие. Такой соединительной черты не было между русскими и татарами, между двумя станами, явно враждебными; но как тонка эта нынешняя черта – между станами, враждебными тайно! <...> Не так ли тонка эта черта, как туманная речка Непрядва? Ночью перед битвой вилась она, прозрачная, между двух станов; а в ночь после битвы и еще семь ночей подряд она текла, красная от русской и татарской крови.<sup>14)</sup>

두 진영, 민중과 인텔리겐치아의 진영 사이에는 서로 일치되는 어떤 자질이 있다. 러시아군의 진영과 타타르군의 진영, 명백히 적대적인 두 진영 사이에는 그런 결합자질이 없었다. 그러나 은밀히 적대적인 두 진영 사이의 작금의 이 자질은 얼마나 미묘한가! [...] 이 자질은 안개 낀 네프랴드바 강 같이 미묘하지 않은가? 전투를 앞둔 밤에 강은 투명하게 두 진영 사이를 구불구불 흘렀다. 전투가 벌어진 후의 밤에 그리고 또 일곱 밤을 연이어 강은 러시아군과 타타르군의 피로 붉게 물들어 흘렀다.

오랜 세월 극복되지 못한 민중과 인텔리겐치아의 대립과 갈등의 해결이 임박했다는 블록의 예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운명의 노래(Песня Судьбы)」(1908)의 주인공 게르만은 이렇게 말한다.

Все, что было, все, что будет, – обступило меня: точно эти дни живу я жизнью всех времен, живу муками моей родины. Помню страшный день Куликовской битвы.<sup>15)</sup>

일어난 모든 것이 또 일어나리란 생각이 날 둘러쌌다. 이 날들 동안 정확히 나는 모든 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 내 조국의 고통들을 살고 있다. 쿨리코보 전투의 무시무시한 날을 기억한다.

바로 러시아와 민중을 ‘추구하던’ 인텔리겐치아 주인공이 하는 말이다. 쿨리코보는 두 러시아의 숙명적인 충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굳이 쿨리코보인가? ‘스텝’의 상징성 때문이다. 블록의 말처럼, ‘스텝’은 되풀이되는 ‘러시아의 역사적 길’과 그 길의 토대로서의 ‘러시아 정신’의 유형을 상징한다.

14) А. А. Блок(1960–1963) *Собр. соч.: В 8 т.*, Т. 4, М.;Л.: Гослитиздат, С. 323-324.

15) *Там же*, С. 148.

Куликовская битва принадлежит к символическим событиям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Таким событием суждено возвращение. Разгадка их еще впереди.<sup>16)</sup>

쿨리코보 전투는 러시아 역사의 상징적 사건들에 속한다. 그런 사건은 되 돌아오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런 사건들의 해명은 아직 앞으로의 일이다.

블록에 따르면, ‘러시아의 길’은 ‘스텝의 길’이다. ‘고대 타타르의 자유와 애수의 길’이다. 한없는 자유와 애수는 루시의 숙명이다. ‘타타르의 자유’가 ‘루시의 자유’인 까닭은 사이클의 첫 시에서 묘사되는 자연정경이 루시와 타타르의 공간적 차이를 무화시키기 때문이다.

Река раскинулась. Течет, грустит лениво / И моет берега. / Над  
скудной глиной желтого обрыва / В степи грустят стога.<sup>17)</sup>

강이 펼쳐졌다. 굼뜨게 흐르며 슬퍼한다. / 강변을 적신다. / 노란 절벽의  
매마른 흙 위에서, / 초원에서 건초 더미들이 슬퍼한다.

드넓은 강이 자유롭고 굼뜨게 흐르며 슬퍼하고 광활한 초원에서 건초더미 역시 슬픔에 잠겨 있다. 초원은 타타르의 공간, 곧 적대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광활한 공간의 우수가 러시아의 자연 정경과 동질적이다. “초원의 건초더미” 역시 ‘나’와 ‘타자’의 공간의 대립을 무화시킨다.<sup>18)</sup> “오, 나의 루시여!” 이 외침을 통해 자연정경이 지닌 ‘러시아성’이 텍스트의 전면으로 대두된다. 조국의 형상의 라이트모티프가 이어 등장하는 길의 형상이다. 길의 형상이 평온한 슬픔에 잠긴 첫 연의 정경을 대체한다. 자유로운 길은 구속 없이 제멋대로 흐르는 강의 형상과 연상관계를 이룬다. 의식에 선명하게 각인된 끝없는 길. 심장을 파고드는 화살처럼 고통스럽다. 정주를 모르는 쏜살같은 질주의 길. 길의 형상에 정주와 구속을 모르는 воля로서의 자유의 모티프가 결부된다.<sup>19)</sup> 쏜살같이 질주하는 “스텝의 말”은 러시아의 상징이다.

블록의 말처럼 воля는 고래로 러시아어에 고유한 말이다. 러시아인 고유

16) A. A. Блок(1997), T. 3, C. 911.

17) Там же, C. 170.

18) Г. П. Федотов(1991a) “На поле Куликовом,” *Судьба и грехи России: В 2 т.*, T. 1, СПб.: София, C. 104.

19) 줄고(2011), 「시와 러시아정신 - 자유, 그리고 애수에 관하여」, 『러시아연구』 21: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60쪽.

의 ‘자유’의 표상을 구현하는 말인 것이다. воля와 함께 러시아인의 언어 의식에서 일종의 ‘나’와 ‘타자’의 관계를 맺는 свобода는 서구 근대정신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러시아의 광활한 공간의 토포스와 긴밀히 연관된 말인 воля의 경우 규제와 제한을 모르는 무한한 공간의 존재가 핵심적인 의미소라면, свобода의 의미는 자유의 실현을 위한 외적 조건, 곧 법적·사회적 조건과 관계된다. воля는 стихия의 상태, 곧 자연 그대로의 자유분방함이다. 반면 свобода는 규제와 질서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개념이다.<sup>20)</sup>

블로크는 러시아를 폭풍(буря)이라고 말했다.<sup>21)</sup> 러시아가 воля로서의 자유의 구현체임을 말한 것이다. 동시대의 민중봉기, 사회적 стихия 속에서 그는 역사의 길을 통해 반복되는 воля의 정신의 발현을 보았다.

혁명에 대한 블로크의 사고는 바로 러시아정신의 허무주의적·절대주의적 속성의 선명한 발현이었다.

Что же задумано? Переделать все. Устроить так, чтобы все стало новым; чтобы лживая, грязная, скучная, безобразная наша жизнь стала справедливой, чистой, веселой и прекрасной жизнью. Когда такие замыслы разрывают сковывавшие их путы – это называется революцией.<sup>22)</sup>

무엇이 예정된 것인가? 모든 것을 새로 만들 것. 모든 것이 새롭게 되도록 할 것. 거짓되고 추악하고 무료한 우리의 생이 정의롭고 순결하고 유쾌하며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할 것. 그런 계획들이 족쇄를 끊고 풀려나는 때, 그것이 혁명이라 불린다.

「쿨리코보 들판에서」의 시구들은 전율에 차 있다. 정복자에 대한 승리의 순간에 대한 찬양과는 거리가 먼 비애에 찬 비극적 음조가 낳은 전율이다. 바로 ‘보복(возмездие)’에 대한 비극적인 예감 때문이다.

블로크의 주제이자 ‘은시대’의 시대정신이었던 ‘보복’은 민중을 새로운 주체로 내세운 역사가 19세기 인텔리겐치아의 휴머니즘적인 인민주의 문화에 내린 징벌을 의미했다. 그 자신이 인텔리겐치아의 일원이었던 블로크는 자기파멸을 역사의 불가피성으로 받아들였다. 근대화의 과제, свобода의 과제를 실현하지 못한 죄과

20) 줄고(2011), 57-58 참조. 또한 길윤미(2011) 「러시아 언어-문화에서 ‘자유’의 개념화 양상」, 『인문과학』 제23집,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9 참조.

21) A. A. Блок(1960-1963), Т. 6, С. 9.

22) Там же, С. 12.

에 대한 ‘보복’이다. 블로크에게 민중봉기, русский мятеж는 인텔리겐치아의 죄악의 정화를 위한 파괴의 불길이었다.

로트만(Ю. М. Лотман)이 러시아사와 문화의 유형의 문제로 제기한 “스무타의 메커니즘.”<sup>23)</sup> 20세기말까지 러시아 현대사를 통해서도 되풀이되는 ‘스무타’의 문제는 문화의 정신적 기초의 견지에서 보면, ‘자유’의 문화적 표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서구적 계몽의 실패는 곧 свобода의 가치가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그에 따라 воля가 변함없이 문화의 정신적 근원으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воля의 문화의 문제는 비단 ‘스무타’, русский бунт를 통해 발현되는 정신의 상태, 심리적·정서적 지향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페도토프(Г. П. Федотов)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무정부주의적 소요와 전체주의적 압제 모두에서 관철되는 러시아문화의 정신적 기초이다.

Воля есть прежде всего возможность жить, или пожить, по своей воле, не стесняясь никакими социальными узами, не только цепями. Волю стесняют и равные, стесняет и мир. Воля торжествует или в уходе от общества, на степном просторе, или во власти над обществом, в насилии над людьми. Свобода личная немыслима без уважения к чужой свободе; Воля – всегда для себя. Она не противоположна тирании, ибо тиран есть тоже вольное существо. <...> Так как воля, подобно анархии, невозможна в культурном общежитии, то русский идеал воли находит себе выражение в культуре пустыни, дикой природы, кочевого быта, цыганщины, вина, разгула, самозабвенной страсти, – разбойничества, бунта и тирании.<sup>24)</sup>

Воля는 무엇보다도 우선 사회적 굴레 뿐 아니라 그 어떤 사회적 관계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지에 따라 살,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다. 동등한 존재들도 세상도 воля를 억압한다. воля는 사회를 벗어난 스텝의 평원 위에서나 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 사람들에게 대한 강제 속에서 승리를 구가한다. 개인의 свобода는 다른 사람의 свобода에 대한 존중 없이는 생각될 수 없다. воля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폭정에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폭군 또한 воля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 무정부 상태처럼 воля는 문화적 공동체 속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인의

23) Ю. М. Лотман(2002) “Механизм смуты,” *История и типолог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б.: Искусство-СПБ, С. 33-47.

24) Г. П. Федотов(19916), 286.

воля의 이상은 황야의 문화, 야생의 자연의 문화, 유목문화, 집시문화, 술과 광란과 자기망각의 열정의 문화 속에서, 약탈과 폭동과 폭정의 문화 속에서 표현된다.

푸시킨이 보로디노의 경험을 통해 꿈꾸었던 새로운 свобода의 세기의 기획의 실패, 그 역사적 귀결점이 블로크의 쿨리코보시를 통해 대두되는 러시아적 자유, воля이다.

#### 4.

Все неизменно и все изменилось / В утреннем холоде странной свободы. /  
Долгие годы мне многое снилось, / Вот я проснулся – и где эти годы! //  
Вот я иду по осеннему полю, / Все как всегда, и другое, чем прежде: /  
Точно меня отпустили на волю / И отказали в последней надежде.

- Г. Иванов, “Все неизменно и все изменилось...”(1948)<sup>25)</sup>

이상한 자유의 아침의 한기 속에서 / 모든 것이 변함없고 모든 것이 변했다. /  
오랜 세월 나는 많은 것을 꿈꾸었다. / 이제 잠에서 깨어난 지금, 이 세월은 어디 있는가! // 가을 들판을 걷는다. / 모든 것이 여느 때 같고,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다르다. / 분명 나는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고 / 마지막 희망을 거절당했다.

- 게오르기 이바노프, 「이상한 자유의 아침의 한기 속에서……」(1948)

전체주의의 압제가 다시 도래한다. 그리고 한 세기 후 러시아인들은 다시 파리의 거리에 섰다. 자유의 이상의 진원지였던 파리에서 러시아 시인들은 다시 자유를 찾았다. 이번에는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다. 본토의 문학은 민중과 함께 압제의 지배 아래 놓였고, 20세기 러시아문학의 다른 물결은 조국과 민중을 상실하고 자유에 내맡겨졌다.

‘파리의 선율(Парижская нота)’의 정신적 스승격인 시인 게오르기 이바노프는 그 자유를 “이상한 자유”라 불렀다. 조국 없는 자유, 희망 없는 자유이다. ‘내던져진 존재’의 고독과 자유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망명 러시아시인의 시선에는 실존주의적 색채가 짙게 배어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이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익숙한 삶의 환상에서 깨어난 아침

25) Г. Иванов(2005)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тихотворений*, СПб., <http://lib.ru/RUSSLIT/I/WANOWGstih.txt>(검색일:12.09.05).

이다. “이상한 자유”는 익숙하던 일상으로부터의 소외, 삶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시인이 처한 상태는 사르트르적인 인간이 처한 자유의 상태와 유사하다. 그는 ‘이중의 지각’으로 세상을 대한다. ‘모두’와 같은 존재이기를 그치고 타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 지각으로 인해 다른 ‘모두’는 모르는 참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진다. 세상과 유리된, 자유로운 시각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라는 짐.

이바노프는 사르트르적인 ‘자유’와 ‘무’를 주창하지 않는다. 시인은 자신의 삶이 그와 같은 “이중적인 지각의 재능에 의해 일그러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sup>26)</sup> 그의 “이상한 자유”에는 푸시킨적인 시인의 조건에 충실했던 러시아 시인의 절망이 깃들여 있다.

“이중적인 지각의 재능”은 푸시킨이 확립한 시인의 존재조건이다. 세상이 익숙한 모습을 벗고 새롭게 지각되는 순간은 예기치 않은 선물과 같이 찾아온다. 지각의 혁신의 선물을 받기 위해 시인은 세속적 가치에서 자유로운 존재여야 한다. 그 ‘내적 자유’를 통해 시인은 정신적 갱생의 기적을 겪는다. 존재의 정화로서의 ‘기적’은 푸시킨 시학의 본질을 구현한다. 정화된 내적 시선을 통해 푸시킨의 시적 자아는 신적인 이상적 질서를 본다.

<...> В глуши, во мраке заточенья / Тянулись тихо дни мои / Без божества, без вдохновенья, / Без слез, без жизни, без любви. // Душе настало пробужденье: / И вот опять явилась ты, / Как мимолетное виденье, / Как гений чистой красоты. // И сердце бьется в упоенье, / И для него воскресли вновь / И божество, и вдохновенье, / И жизнь, и слезы, и любовь.

- А. Пушкин, “К\*\*\* (“Я помню чудное мгновенье...”)(1825)<sup>27)</sup>

[...] 벽지에서 유배의 암흑 속에서 / 내 나날들은 고요히 흘러갔소. / 신성도 영감도 / 눈물도 삶도 사랑도 없이. // 이제 영혼이 소생하고 / 바로 당신이 다시 나타났소. / 스쳐가는 환영(幻影)처럼, / 순수한 미의 화신처럼. // 가슴은 환희로 고동치고 / 그를 위해 되살아났소. / 신성도 영감도 / 삶도 눈물도 사랑도.

- 알렉산드르 푸시킨, 「나는 경이로운 순간을 기억하오……」(1825)

26) 이바노프의 시와 프랑스 실존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M. Ю. Гапеев(2012) “Поэзия русской эмиграции первой волны и французское искусство XX века: тенденции взаимовлияния,” *Молодой ученый*, №. 9, С. 177-182 참조. 이바노프의 “이중적인 지각의 재능”의 개념에 대해서는 Вадим Крейд, “Георгий Иванов” (<http://lib.rus.ec/b/200186/read>, 검색일: 12.09.06)를 참조.

27) А. С. Пушкин(1978), 198.

푸시킨에게 시적 영감은 변덕스럽고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은 예기치 않게 시인을 찾아온다.<sup>28)</sup>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감의 비논리성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실존의 각 순간에 조화로운 세계상이 예기치 않게 열릴 수 있음에 관한 시인의 믿음의 토대가 된다. 영감에 의해 선택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 시인은 삶에 대한 성찰적 거리를, 내적 평정과 자유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푸시킨에게 시인은 우주의 섬세한 귀이며, 시는 이상적인 존재상의 발현이다. 그는 삶을 믿었던 시인이다. 그의 삶에 대한 믿음은 내적 사색을 통해 어둠을 빛으로 승화시키는 창조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sup>29)</sup>

“사색하고 고통 받기 위해, 나는 살고 싶네.(Я жить хочу, чтоб мыслить и страдать.)”<sup>30)</sup> 푸시킨의 삶의 철학은 다른 누구도 아닌, 조국을 상실하고 타지에서 삶의 고통에 내몰린 망명 러시아 시인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푸시킨의 이중적인 지각은 정신적 정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삶을 일그러뜨렸다. 삶의 새로운 지각의 순간은 이상적인 조화로운 세계상의 체험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무의미와 불구성에 대한 확인이다. 그래서 다른 지각의 순간, 영혼을 채우는 것은 온기가 아니라 한기이다. 삶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의 한기.

이바노프에게 푸시킨은 러시아 문화와 잃어버린 조국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 푸시킨은, 예술가의 자유의 이상은 죽었다. 푸시킨적인 이중의 지각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시인의 내적 자유를 통해 가능했던 삶의 근원적인 조화에 대한 종교적 믿음의 소멸은 러시아문화의 죽음, 예술의 죽음을 의미했다. 이바노프의 시는 카타르시스 없는 고난에 대한 시다. 그의 자유는 예술의 조건이 아니라 예술의 죽음이다.

혁명의 стихия가 사그라지고 전체주의의 암운이 드리웠던 생의 말년에 블로크는 예술의 세계에서 간직되던 자유의 이상조차 종말을 고할 것임을 그 이상의 대변자였던 푸시킨에게 작별을 고하며 예언한 바 있다.

28) Н. Гей(1999) “‘Свобода,’ ‘Вдохновение’ и ‘Труд’ как эстетические константы мира Пушкина,” *Пушкин и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ая мысль*, М.: Наследие, С. 57.

29) 여기에서 푸시킨의 시인론은 즐고(2004) 「시인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에서 논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러시아연구』 14: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27-234 참고.

30) А. С. Пушкин(1978), 286.



<...> Пушкин! Тайную свободу / Пели мы вслед тебе! / Дай нам руку  
в непогоду, / Помогли в немой борьбе! // Не твоих ли звуков сладость /  
Вдохновляла в те года? / Не твоя ли, Пушкин, радость / Окрыляла нас  
тогда? // Вот зачем такой знакомый / И родной для сердца звук - / Имя  
Пушкинского Дома / В Академии Наук. // Вот зачем, в часы заката /  
Уходя в ночную тьму, / С белой площади Сената / Тихо кланяюсь ему.

- А. Блок, “Пушкинскому дому”(1921)<sup>31)</sup>

[...] 푸시킨! 그대를 뒤따라 우리는 / 은밀한 자유를 노래했네! / 악천후  
치는 날에 손을 내밀어 주시게, / 말없는 투쟁 속에서 도와주시게! // 그대  
의 음성의 달콤함이 / 그 시절에 영감이 되곤 하지 않았던가? / 푸시킨, 그  
대의 기쁨이 / 그때 우리를 날갯짓하게 하지 않았던가? // 바로 그래서 그  
토록 익숙하고 / 가슴에 친근한 울림인 것을, / 과학 아카데미의 / 푸시킨스  
키 돔의 이름이. // 바로 그래서 노을이 지는 때 / 한 밤의 어둠 속으로 떠  
나가며, / 원로원의 하얀 광장으로부터 / 그에게 조용히 고개 숙이네.

- 알렉산드르 블로크, 「푸시킨스키 돔에게」(1921)

“이상한 자유”에 내몰렸던 시인 이바노프는 생의 마감을 인간 푸시킨의  
임종의 고통에 의탁했다. 예술가의 자유의 이상이 아닌 죽음의 고통을 통  
한 인간 푸시킨과의 친교이다.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ич, я о вас скучаю. / С вами посидеть бы, с вами б  
выпить чаю. / Вы бы говорили, я б, развесив уши, / Слушал бы да  
слушал. // Вы мне все роднее, вы мне все дороже. /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ич, вам пришлось ведь тоже / Захлебнуться горем, злиться,  
презирать, / Вам пришлось ведь тоже трудно умирать.

- Г. Иванов,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ич, я о вас скучаю...”(1958)<sup>32)</sup>

알렉산드르 세르게이치, 당신이 그립습니다. / 당신과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고 싶습니다. / 당신은 말하고, 나는 낯을 잃고 당신의 말을 / 듣고 또 들  
고 싶습니다. // 내게 누구보다 친근하고, 내게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 알렉  
산드르 세르게이치, 과연 당신도 또한 / 비애를 맛보고 화를 내고 떨시해야  
했지요. / 과연 당신도 또한 죽음이 힘들었지요.

- 게오르기 이바노프, 「알렉산드르 세르게이치, 당신이 그립습니다……」(1958)

31) А. А. Блок(1997), Т. 5, С. 96-97.

32) Г. Иванов(2005).

## 참고문헌

- 길윤미(2011) 「러시아 언어-문화에서 ‘자유’의 개념화 양상」, 『인문과학』 제23집,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9.
- 최종술(2004) 「시인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의 두 얼굴」, 『러시아연구』 14: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7-238.
- \_\_\_\_\_(2011) 「시와 러시아정신 - 자유, 그리고 애수에 관하여」, 『러시아연구』 21: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51-72.
- Аксюциц, В.(2011) “Русск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о русском народе,” [http://www.golos-epochi.ru?ELEMENT\\_ID=1695](http://www.golos-epochi.ru?ELEMENT_ID=1695)(검색일: 2012.09.03).
- Беляев, Ю. А.(сост.)(1987), *1812 год глазами очевидцев. Поэзия и проза*, М.: Современник, [http://az.lib.ru/r/raich\\_s\\_e/text\\_0070.shtml](http://az.lib.ru/r/raich_s_e/text_0070.shtml)(검색일: 2012.09.03).
- Бердяев, Н. А.(1990) *Истоки и смысл русского коммунизма*, М.: Наука.
- Блок, А. А.(1960–1963) *Собр. соч.: В 8 т.*, Т. 4, 6, М.;Л.: Гослитиздат.
- Блок, А. А.(1997) *Полн. собр. соч. в 20 т.*, Т. 3, 5, М.: Наука.
- Гапенкова, М. Ю.(2012) “Поэзия русской эмиграции первой волны и французское искусство XX века: тенденции взаимовлияния,” *Молодой ученый*, № 9, С. 177-182.
- Гей, Н.(1999) “‘Свобода,’ ‘Вдохновение’ и ‘Труд’ как эстетические константы мира Пушкина,” *Пушкин и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ая мысль*, М.: Наследие, С. 52-71.
- Грушкин, А. И.(1941-1956) “Война 1812 года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10 т.*, Т. 5, М.;Л.: Изд-во АН СССР, С. 315-326.
- Евтихиева, А.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 1812 г. и ее отражение в рус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сознании и культуре,” <http://www.voskres.ru/school/evtihieva.htm> (검색일: 2012.09.03).
- Иванов, Г.(2005)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тихотворений*, СПб., <http://lib.ru/RUSSLIT/IWANOWGstihi.txt>(검색일: 2012.09.05).
- Ключевский, В. О.(1958) *Курс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Т. 4, М.: Изд-в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 Крейд, В. “Георгий Иванов,” <http://lib.rus.ec/b/200186/read>(검색일: 2012.09.06).
- Левченко В. Г. и В. В. Володин(сост.)(1987) *Недаром помнит вся Россия...: Сборник*, М.: Мол, гвар-дии.
- Лермонтов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1999), М.: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Лотман, Ю. М.(2002) “Механизм смуты,” *История и типология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б.: Искусство-СПБ, С. 33-46.
- Мережковский, Д. С.(1992) “Грядущий хам,” *Интеллигенция – власть – народ. Русские источники соврем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философии (антология)*, М.: Наука, С. 81-119.
- Муравьева, О. С.(1991) “Пушкин и Наполеон (Пушкинский вариант «наполеоновской легенды»),” *Пушкин: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материалы*, Т. 14, Л.: Наука, С. 5-32.
- Пушкин, А. С.(1978) *Сочинения в трех томах*, Т. 1, М.: Худ. литература.
- Стенник, Ю. В.(1975) “Традиции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ды XVIII века в лирике Пушкина периода южной ссылки («Наполеон»),” *XVIII век*. сб. 10, Л.: Наука, С. 105-120.
- Федотов, Г. П.(1991а) “На поле Куликовом,” *Судьба и грехи России: В 2 т.*, Т. 1, СПб.: София, С. 102-122.
- \_\_\_\_\_ (1991б) “Россия и свобода,” *Судьба и грехи России: В 2 т.*, Т. 2, С. 276-303.
- Щипанов И.(ред.)(1951) *Избранные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и философ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декабристов*, Т. 1, М.: Гос. изд. полит. лит.

## Резюме

## Куликово – Бородино – Парижская нота

Чой, Чжон-Сул

Куликовская битва и бородинское сражение являются важнейшими событиями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источник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гордости. Однако, в поэтических размышлениях русских поэтов над историей они не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равнозначные объекты похвалы. В статье автор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тексты А. С. Пушкина и А. А. Блок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Наполеон» (1821) и цикл «На поле куликовом» (1908), где размышляются пророческие смыслы этих двух событий дл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удьбы России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Пушкин пророчит исторический путь России XIX века, определенный войной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с Наполеоном, а блоковский цикл – размышление о значении куликовской битвы, ставшем актуальным для России на историческом переломе. В статье такж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смысл текста поэта русского Парижа Г. Иванова, свидетеля трагед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XX века, вызванной крушением родившегося войной 1812-го года идеала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XIX века. Тема "свободы" позволяет рассмотреть тексты этих трех поэтов в рамках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нечным пунктом "эры свободы," напроноченной Пушкиным, является блоковская концепция "вольной Руси." А ивановская концепция "странной свободы"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смерти рус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основанной на пушкинском идеале "внутренней свободы."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2. 10. 25
논문심사일:	2012. 11. 1 ~ 11. 23
심사완료일:	2012. 11. 28